

루시 맥 스미스의 편지 발견되다



1829년 1월에 루시 맥 스미스가 쓴 편지가 브랜트 에프 애쉬워즈에 의해 전시되었다.

새로 발견된 요셉 스미스의 어머니가 쓴 편지에는 예언자가 금판에서 최초로 번역한 원고 116페이지의 분실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루시 맥 스미스가 1829년 1월 23일에 쓴 편지에는 교회 역사 편찬 위원들에게 전할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실려 있다. 이 편지는 리하이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스마엘이 리하이의 아내인 새라리아의 형제임을 밝혀 주고 있다.

이 편지는 취미로 역사적인 문서를 수집하고 있는 유타주 프로보에 사는 변호사 브랜트 에프 애쉬워즈(33세)가 소장하고 있다. 8월 23일 교회가 가진 기자회견에서 애쉬워즈씨는 보도 기관에 그 편지의 사본을 제공하고 그것에 관한 질문에 답했다.

버몬트주 로이얼톤에 사는 그녀의 시누이 매리 피어스에게 보낸 이 편지는 교

회에 관해 언급한 가장 오래된 재료가 된다. 그 편지는 “맨체스터”에서 쓰여졌으며 “뉴욕, 팔마이라”의 소인이 찍혀 있었다.

루시 맥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주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위대한 사업에 대해 알려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꿈 속에서 요셉에게 길을 밝히사 순금으로 된 판에 새겨진 고대 기록을 얻기 위해 땅 속을 파야 할 곳을 가르쳐 주셨으며 또한 그것을 번역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내 목적은...이 사업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형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쉬워즈는 그 편지가 두 사람의 수집가를 거쳐 그의 손에 들어왔으며 첫번째 수집가는 뉴욕에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3-4개월 동안 노력해 오다가 7월에 가서야 그것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편지는 희귀한 소인 수집품의 일부로서 보존되어 왔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 매우 놀라 거의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필적의 전문가이며 교회 역사 편찬 위원인 딘 레시가 그 편지의 진가를 증명했고 그 필적은 “틀림없이 루시 맥스미스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쉬워즈가 보관하고 있는 편지는 그녀가 1831년에 그녀의 형제 솔로몬에게 보낸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고했다.

“루시가 글을 잘 읽고 쓸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 편지는 그녀가 글을 잘 아는 자일 뿐만 아니라 분명하고 훌륭한 필체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교회사에 따르면 매리 피어스에게 보낸 이 편지는 예언자 요셉이 분실한 116페이지의 "큰 판" 번역을 완성했던 시기와 후에 물문경으로 출판된 "작은 판"의 번역을 예언자가 시작했던 1829년 4월의 중간 시기에 쓰여졌다.

제시는 그 편지가 후에 루시 맥 스미스와 요셉 스미스에 의해 쓰여진 몇가지 역사적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편지에서 루시 스미스는 팔마이라 바로 남쪽의 구모라 언덕에서 발견된 고대 기록의 번역에 대한 그녀의 아들의 사업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녀는 "부주의로 인해" 116페이지를 분실한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잃어버린 원고의 내용에 관해서도 대강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읽거나 아들의 입을 통해서 또는 교회 성명을 통해 이 원고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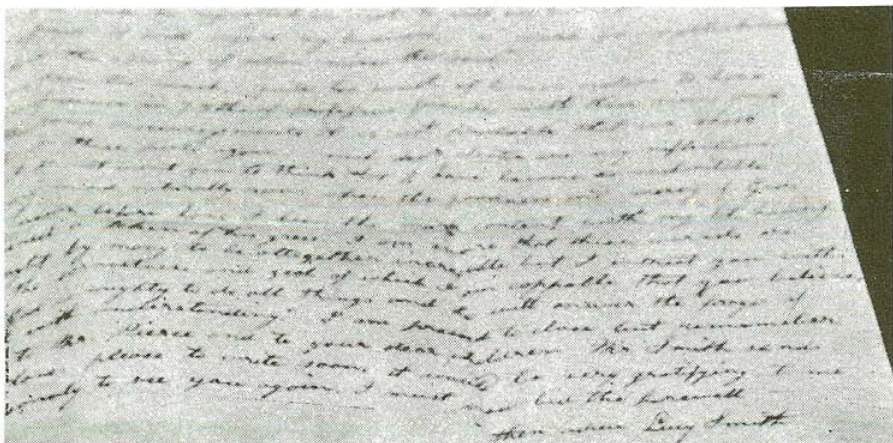
루시 스미스는 가족에게 닥친 박해가 너무 심하여 요셉과 그의 아내 엠마는 번역을 계속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 하모니로 이사하였다는 사실도 기록했다.

그녀는 또한 그때까지 아들이 완성한 번역에서 유대의 예언자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느브갓네살이 성을 장악하고 멸망시키기 전에 어떻게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왔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교회 역사과의 부 책임자인 얼 이 올슨은 이렇게 말했다. "물문경으로부터 우리는 리하이가 자신의 가족과 이스마엘의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마엘이 리하이의 처남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이것은 루시맥이 자신의 편지에서 언급한 잃어버린 원고에 포함되어 있는 상세한 내용이다."

그 편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도왔던 "비밀 조직"의 존재에 대해 말해 주고 있으며 그와 같은 조직이 미대륙으로 건너온 자들 가운데서도 존재해 있었다고 말해 준다. *



루시 맥 스미스는 명쾌하고 우아한 문체를 지니고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 교회 통조림 공장 방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이 복지 사업 자원 봉사자인
할즈 엘리 형제(81세)에게 레이건 대통령을 소개하고 있다. (체치 뉴스 사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9월에 유타주 옥든에 있는 교회 통조림 공장과 창고를 방문하고 이러한 시설이 우리가 자기 자신과 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말했다. 옥든 지역 복지 사업 센터를 방문한 레이건 대통령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의 영접을 받았다. 이 센터에는 통조림 공장, 유유 가공 시설, 창고 등이 들어서 있다.

주위를 돌아 보던 레이건 대통령은 스테이크 농장에서 경작한 식료품을 가공하는 수많은 자원 봉사자들을 만났다. 그 식료품은 이 센터에서 일하는 교회 복지 사업 수혜자들을 위해 쓰이며, 많은 양의 식료품이 비상 사태로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들 자원 봉사자의 활동을 “한때 우리 나라의 특성을 나타낸 이념을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치하했다. *

세 개의 인도어로 번역된 몰몬경 힌디어, 타밀어, 텔루구어

몰몬경이 인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세 언어로 번역됨에 따라 몰몬경을 읽을 수 있는 가능한 독자층이 3억 이상 증가되었다.

몰몬경은 약 2억 2천 4백만 명이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이 나라의 나머지 많은 지역에서 제2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힌디어로 완전 번역되었으며 5천 5백만 명이 사용하는 텔루구어와 5천 5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타밀어로 발췌 인쇄되었다.

이번 번역으로 몰몬경 번역판이 52개어로 늘어났으며, 번역 담당 책임자인 넬 데이비스 형제의 말에 따르면 1981년에는 9개어로의 번역을 마쳤으며, 더 많은 수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

유타 주민이 노르웨이 기사 작위를 받음

십이 사도 정원회의 지역 대표이며 1971년 이래 유타 주재 노르웨이 영사로서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존 랑거란 장로는 귀감이 되는 우수한 공직자로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크누트 헤이더만 주미 노르웨이 대사가 노르웨이 왕이 수여하는 최고 국민 훈장인 성 오울러프 훈장에 속하는 기사 작위를 랑거란 장로에게 수여하였다.

헤이더만 대사는 지난 11년간 유타주와 노르웨이에서 훌륭하게 일한 랑거란 장로의 공로에 대한 왕의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리 오스몬드 농구 스타와 결혼하다

여러 해 전부터 유명한 오스몬드 가족의 일원인 가수 마리 오스몬드는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이 그녀 생애의 두 가지 중요한 목표라고 말해 왔다. 그 목표의 하나는 지난 6월에 브리감 영 대학교의 농구 스타였던 스티브 크레이그와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결혼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이며, 오스몬드 가족과 친분이 두터운 폴 에이치 던 장로가 직계 가족만이 참석한 가운데 의식을 집행하여 이 부부를 인봉하였다.

짧은 밀월 여행을 마친 후 마리는 그녀의 오빠와 동생들 도니, 앨런, 웨인, 메릴, 제이 그리고 지미와 함께 두 달 동안에 걸친 연주 여행을 떠났다. 그 동안에 스티브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공보와 커뮤니케이션 학위를 마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

“우리는 둘 다 양쪽 가정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고 생활해 왔으므로, 우리 두 사람의 가정을 꾸미는 것에 대해 벅찬 기대를 품고 있어요. 물론 그 방법은 다르겠지만요.” 하며 일본에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의 선수 생활을 중단하기도 했던 스티브는 말했다. *



스티브 형제 부부

호주의 시드니 신전 기공식



시드니에서 첫 땅을 파는 피터와 장로의 아들인 장로

8월 13일 금요일에 호주의 시드니 신전 기공식이 있었다.

캐링스프스 구역에 있는 부지에서 열린 이 기공식은 12사도 정원회의 맥콩키 장로가 감리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이며 호주 담당 집행 관리자인 렉스 디피네가 장로와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임을 도왔다.

교회 설계자인 에밀 비 페처 형제는 건축 설계가 거의 완성되었으며 당국의 필요한 승인도 이미 받았다고 보고했다.

교회의 신전 및 특별한 건축 책임자인 엘 엠 몬슨 형제에 따르면 공사는 곧 시작되며, 12,500평방 피트나 되는 이 건물은 완성되는 데 16~18개월이 소요된다.

1980년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호주에 최초로 신전이 세워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신전은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건축중이거나 설계중인 41개의 신전 중의 하나다. *

행스 장로 신전장으로 부름받음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인 매리온 디행스 장로(60세)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솔트레이크 신전장으로 부름받았다. 그의 아내인 맥신 자매는 신전에서 일하는 자매들을 관리하는 신전 매트론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53년에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은 행스 장로는 이번 신전장으로 부름받기 전 지난 2년간 동남 아시아와 필리핀 지역의 교회 집행 관리자로 봉사하고 있었다. *

최 동헌 형제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2 보좌에 부름받음



9월 12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제7와드에서 열린 서울 서 스테이크 신권 위원회에서 교환 교수로 도미한 박 래정 형제의 후임으로 최 동헌 형제가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로 지지를 받았다. 최 동헌 형제는 그동안 서울 상계 지부장과 서울 스테이크와 서울 동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를 역임하였으며 현재까지 시흥 지부장으로 2년간 봉사했다. 직장은 관리 감독단 한국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회원 통계 기록을 담당하고 있다. *

돼지 저금통 개봉

무게 4.75킬로그램의 돼지 저금통이 개봉되었다. 그 안에서 나온 돈은 38,000원이나 되었다. 이 저금통의 주인은 현재 서울 선교부 금호 전도 지역의 관리자인 서 동욱 장로와 함께 봉사하고 있는 이 진기 장로이다. 이 장로는 개종하기 전 장로교 신자였으며 위로 4명의 형제 중 2명은 독실한 장로교 교인이다. 어느 날 장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선교사를 만나서 궁금한 것을 해결한 그는 곧 개종하여 물몬이 되었다. 약 1년 전부터 신전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는데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았다. 9월 20일,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를 찾아와서 저금통을 개봉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1982년 11월 20일경에 귀환할 예정인 이 장로는 그 동안 연세대 신학 대학을 졸업한 전도사 한 사람을 개종시키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1973년 2월 16일 광주에서 침례를 받고 개종한 그는 스테이크 아론 신권 청남 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하다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다. 중동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일한 적이 있는 성실한 회원이다. *



저금통 앞에서 기념하는 이진기장로

중창 대회 서울 동 스테이크

서울 동 스테이크에서는 9월 18일 제1와드에서 스테이크 아론 신권 및 청녀회 주최로 중창 대회를 가졌다.

손 승은 부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모임은 각 와드, 지부에서 참가한 10개 팀이 각축을 벌였는데 지정곡과 자유곡 그리고 자작곡을 가지고 경쟁을 하였다. 이번 대회의 최우수상은 자작곡 "다시 사신 지도자"를 부른 상계 와드가 차지했고 우수상은 태능 와드 그리고 장려상은 도봉 와드가 각각 차지하였다. *

서울 스테이크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

8월 14일 제4와드에서는 제7회 서울 스테이크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가 열렸다. 지난 수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한 초등협회 어린이들은 이날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여 참석한 회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연극, 무용, 합창, 연주 그리고 의상 발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 모임에서 스테이크 부장단과 고등 평의원이 심사했다.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밝은 모습으로 초등협회 교사들의 지시를 받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발표하였고 햇님반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무대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이날 재능 발표회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모두 기념품을 받고 기뻐하였으며, 햇님상, 달님상 그리고 별님상 등을 받았다. 스테이크 초등협회 직원들은 이 모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참석 인원 약 300여 명. *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남 언양 석남사에서 부산 스테이크 산하 와드, 지부의 청소년들이 모여 '82년도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민 혜기 부산 스테이크 부장을 대회장으로 한 이번 대회는 180여 명이나 참여하였으며, 특히 부산 스테이크로 소속된 울산 지역과 새로 조직된 지부의 청소년들이 더욱 열심히 참여하였다.

장마 기간이어서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모임이 자주 변경되었으나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났다. "훌륭한 선교사가 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세미나, 헬로우인 파티, 무도회 그리고 노년의 모임 등으로 진행되었고 끝으로 간증회를 통하여 신앙의 발전은 물론 회원간의 우정을 두텁게 하는 기회를 가졌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사귄 정으로 인하여 작별을 아쉬워하였으며 훌륭한 선교사 준비 지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엘레인 에이 캐넌 자매, 미국 여성 평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됨



본부 청녀 회장인 엘레인 에이, 캐넌 자매가 2년 임기의 미국 여성 평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캐넌 자매는 솔트레이크에서 1978년 7월 이후 280,000명의 청녀 조직의 회장으로 계속 봉사해 왔다. 말일성도 그리스도 교회 청녀 조직과 상호 부조회는 미국 여성 평의회의 창단 회원이기도 하며, 1838년에 시작된 것으로서 미국에서 아무 당파에도 속하지 않은 가장 오래 된 여성 조직이다. *

조 인식 장로 부부 선교사 출발 (최초의 부부 선교사 탄생)



서울 서 스테이크 제7와드 소속인 조 인식 축복사와 지 용자 자매가 우리나라 최초의 부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지난 9월 28일 부산 선교부로 출발했다. 지금 전주에서 봉사하고 있는 조 인식 장로는 1970년 7월 4일 개종했으며, 영등포 지부장, 고등 평의회를 역임했으며, 서울 서 스테이크 축복사로 봉사하였다. 조 장로는 금년 71세로서 11월 1일은 결혼 5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

특별 노변의 모임

9월 26일 오후 7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제7와드에서는 교회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와 본부 청녀 회장인 엘레인 에이 캐넌 자매의 말씀을 듣는 특별 노변의 모임이 있었다.

서울 지역 대표이신 이 호남 장로가 감리하는 가운데 사회는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인 김 창선 장로가 진행했으며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모인 많은 신권 지도자들과 성도들로 장내를 꽉 메웠다. 이날 물론 합창단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장내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며 참석한 회원들의 마음을 호모하게 해주었다.

청녀 회장인 캐넌 자매는 말씀하는 가운데 김볼 대관장의 안부를 전하면서 김볼 대관장님이 “남편들은 자매들에게 키스를 많이 해주라.”는 말씀을 전하여 참석한 회원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스미스 자매는 교리와 성약 78편 18-19절을 인용하면서 해의 왕국의 최고의 목표인 승영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한 것을 새삼 강조하였다. 모임이 끝난 후 스미스 자매와 캐넌 자매는 참석한 많은 자매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며 그들의 사랑을 전했다. *



제23기 선교사 훈련원 수료



앞 열 왼쪽부터 인천 와드 이은미 자매, 원주 지부 정현희 자매, 서울 7와드 지용자 자매, 조인식 장로, 부산 연산 지부 송덕희 자매, 녹번 와드 임영실 자매, 뒷 열 왼쪽부터 여수 지부 박덕이 자매, 부산 2와드 오승룡 장로, 영도 와드 차윤철 장로, 인천 와드 손규열 장로, 부산 2와드 서양식 장로, 광주 1와드 조영준 장로, 서울 지부 송호철 장로, 청량 와드 이길숙 자매.

지난 9월 20일부터 1주간 실시했던 제 23기 한국 선교사 훈련원에서 14명의 복음 선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각기 임지 선교부로 떠났다. 이들 중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부 선교사인 서울 서스테이크 제 7와드 소속인 조인식 축복사와 지용자 자매도 있어서 더욱 이채를 띠었다.

선교사 훈련 과정은 매월 1회 1주간씩 교육이 실시되며, 복음 선교사 추천서를 받은 모든 예비 선교사와 복음 선교사 추천서를 이미 제출한 모든 분들이 이 교육을 받는다.

한국에도 머잖아 매월 수십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다투어 선교사 훈련원을 찾을 것을 기대한다.

*

부산 신학 연구원 준공식 및 제9회 졸업식

9월 4일 부산시 동래구 거제리에서는 부산 신학 연구원 준공식 및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처음 갖게 된 신학 연구원 건물에서는 더욱 뜻 깊게 제9회 졸업식을 겸하여 200여 명의 회원들과 가족이 참석하여 졸업생들과 신학 연구원의 앞날을 축복하였다. 이날 모임에 교회 교육 기구 대표인 이호남 장로를 비롯하여 한인상 장로, 부산스테이크 부장단, 감독단, 지부장단의 여러 신권 지도자들이 오색 테이프를 끊었으며 준비된 무지개 떡을 나누며 함께 축하하였다. *